



01

건강기능식품 국제수준으로 규제 완화

건강기능식품 인증제 개선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대폭 확대

종류 확대 88종 → 50종 추가 확대

*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소(28종)
* 인삼, 홍삼 등 기능성 원료(60종)

* 국제적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원료는 전문가 심의 후 확대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정부사전심의 → 정부사후관리
* 협회등 자율심의로 전환

개별인정형 원료 신속심사제 도입

심사기간 단축
120일 → 60 일

기능성식품 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 ('17년까지)
750명

신규시장
1,000억원

경제적 효과
3,409억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해
2017년 까지 이루겠습니다.



농식품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계획

농식품 선진화 저해 규제 혁신

- ▶ 산지이용규제 합리화
- ▶ 동물간호사 제도화

농식품 新 시장 창출

- ▶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규제 완화
- ▶ 新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ICT 융복합 활성화

- ▶ 첨단기술 활용 확대
- ▶ 첨단 장비를 활용한 新 농촌 복지서비스 도입

“3년간의 규제개혁 성과”

6차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 ◆ 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법 시행 (2015년 6월)
- ◆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지정
(2013년 : 0개소 → 2015년 : 802명)
-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확대
(2013년 : 0개소 → 2015년 : 9개소)

식품산업 활성화

-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조례 제정
(2013년 : 4개소 → 2016년 2월 : 138개소)
- ◆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곤충원료 확대
(2013년 : 3종 → 2015년 : 7종)
- ◆ 곤충시장 규모
(2013년 : 2,356억원 → 2015년 : 3,039억원)

전통주 시장 확대

- ◆ 하우스 막걸리 생산, 판매 허용 (2016년 2월)
 -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신설 (1 kℓ ~ 5 kℓ 미만)
- ◆ 전통주 온라인 판매처 확대 (2016년 1월)
 - 2013년 : 3개소 → 2016년 : 7개소 (나라장터 등)
- ◆ 브랜디 제조시설 기준 완화 (2016년 3월)
 - (기존) 저장·제성용기 50 kℓ 이상 → (개선) 25 kℓ 이상

